

광주·전남 태풍피해 '눈덩이'

전남도, 중기·상공인 긴급지원

시설물·제품 피해복구 자금 저리 융자

주택·선박 등 파손 주민엔 지방세 감면

전남도는 태풍 '무이파'로 인해 시설물, 제품·원자재 등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저리융자자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아울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안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 기준안에 따르면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 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 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피해 등의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시장·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은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재해복구 정책자금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서도 대출금의 중도금이나 만기 상환금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침수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 복구를 위해 업체당 최대 1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피해 업체나 소상공인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면 재해복구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백억 피해 양식장 어민 보상길 막막

고작 어가당 5000만원 지원 ... 보상 기준 현실화를 재해보험 대부분 미가입 피해액 고스란히 떠안아야



복구 대책 논의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9일 태풍 피해 현장인 완도군 보길도 종리해수욕장을 찾았다. 박지사가 김중식 완도군수와 함께 태풍 '무이파'로 인해 전북양식장이 강풍에 떠밀려와 폐허로 변한 양식장 시설물과 폐사된 전복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먹통 '가거초 기지' 1년째 방치 '태풍피해 키웠다' 어민들 불만

태풍 진로 등 중요한 해상기상정보 제공 못해

이어도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종합 해양과학기지인 신안군 가거도의 '가거초(可居礁) 기지'가 1년째 고장이 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가거도 주민들은 이로 인해 태풍 '무이파'의 피해가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신안군과 가거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발생한 제7호 태풍 '곶파스'때 가거초 관측 장비 등이 고장 났지만 지금까지 복구하지 않아 태풍 진로 등 중요한 해상기상정보 제공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가거도 서쪽 47km 지점 수중양초에 설치된 가거초 기지는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지난 2009년 10월 완공됐다. 구조물 전체 높이는 51m로 수면 위로는 아파트 10층 높이인 26m가

드러나 있다. 면적은 286㎡로 이어도 기지(1345㎡)의 4분의 1 정도 규모지만 21m 높이의 파도와 초속 40m에 이르는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상 및 해양, 대기환경 등을 관측하는 30종 이상의 첨단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파랑, 풍속 등 30여 가지의 해상기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던 가거초 기지 일부 측정 장비가 곶파스 태풍 때 부서졌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금까지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지의 가장 중요한 장비인 수중 관측 장비와 발전기 등이 망가져 사실상 가동이 멈춰 버렸다는 것이다.

연구원 측은 태양광 등을 이용해 풍향 등 극히 일부 자료를 받긴 했지만 이달부터는 아예 통신도 끊긴 상

태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때 부서진 장비 복구를 위한 7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 확보를 해 내년 초까지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거도 주민들은 대형 태풍이 북상하거나 조일 때 이어도 기지와 가거초 기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기상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했는데 고장난지 1년동안 고치지 않아 이번 태풍 피해가 커졌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 김모(56)씨는 "가거초 기지가 제대로 운용됐으면 양식장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과학기지가 고장이 났는데도 1년간 내버려둔 관계 당국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비난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상이변 등으로 수산물 재해가 잦아졌다. 대량화되고 있으나 정착 정부의 보상한도는 어가당 5000만원에 불과해 지원기준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민들도 드물어 이번 태풍 '무이파'로 인해 피해를 본 전남지역 양식어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산물 또는 수산 시설물 피해 사례는 모두 15건에 피해액은 728억 원에 이른다. 연평균 3건의 재해로 146억원의 피해가 난 셈이다.

그러나 재해복구비는 시설의 경우 보조금 35%(지방비 10% 포함), 용자 55%, 자부담 10%, 생물의 경우 보조금 50%, 용자 30%, 자부담 20% 등이다. 시설복구만 놓고 보면 국비 지원율이 25%에 불과하다.

특히 각종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제 복구비의 46% 수준에 그쳐 한 번 재해를 입은 어가들의 경우 조기 회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피해액 부풀리기 때문 이른바 '보조금 잔치' 등을 우려해 수년 전부터 수산재해 발생 때 어가당 보조금이 시설과 생물을 합쳐 5000만원

으로 제한돼 피해 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큰 피해를 본 완도 보길도 등 전북양식장의 경우 어가당 평균 30만~40만미를 키우는 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해도 1억~1억5000만원 정도에 이르지만 현재의 피해보상 한도는 전북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배와 바지선 등 양식시설까지 파손됐을 경우 5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수산 재해보험 대상이 넓치 않다는 점도, 조피볼락, 굴, 김 등 5개 품목에 불과해 이들 품목 이외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가는 시설복구비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민은 완도와 진도가 각각 61어가와 11어가에 그쳤고 특히 완도의 경우 이번에 피해를 본 어가 중 보험가입 어가는 18어가로 20%에 불과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재해복구비와 낮은 국고지원율로 인해 피해 어가들의 경우 재난발생 때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재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어민 생존권 차원에서 도 복구비 현실화와 보험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 300여곳 산사태 원인 공방

진상면 물폭탄...일부선 '밤나무 베어냈기 때문'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광양지역 수백 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는 "5개 읍·면·동 지역에 시간당 평균 100mm 등 집중호우가 내린 여파로 인해 9일 현재 진상면 200여곳 등 모두 300여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면 산사태 가운데 80%에 달하는 150여곳이 어치·황죽·비평리 등 3개 마을에 집중돼 산사태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현수 진상면장은 "생전에 이척 럼 큰비는 처음이라는 주민들의 말을 보면 광양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지역인데다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산사

태가 발생했다"며 물폭탄을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진상면은 7일 밤 시우량 108mm 등 기록적 강우량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산사태 원인으로 산 경사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산사태 방지 등의 효과가 큰 밤나무 등을 경제성을 이유로 베어내고 화초성 대체작물을 심는 등 인위적 개발을 지목하고 있다. 박 면장은 "3곳 마을의 산사태 지역도 절반 정도가 밤나무를 베어내고 고사리나 고로쇠, 매실 등을 심는 등 산지개발을 한 곳들이 쏠리고 있다."

"산지개발이 산사태 발생에 다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비는 어떤 지형도 산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정민기자 py4079@

빛의만평

-김중두



정부 믿지 말고 열심히 기도나 하도록...

Jeju Special Product (2 days 3 nights) 95,000 won.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time, transportation, and details. Also features a 'Jeju Cruise' advertisement with a large image of the Star Cruise ship and the text '제주여행!!'.